

광주시, 청년의 날 맞아 “오늘도 레벨업” 축제

내일부터 5·18민주광장 일원 청년 정책 공유 등 직접 기획 갯생토크·댄스경연 등 다채

광주시가 ‘광주 청년의 날’(9월21일)을 맞아 27~28일 이틀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년축제를 연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청년의 날’은 9월 셋째주 토요일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한 ‘세계청년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10번째다. 광주시는 이 기간동안 청년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공연,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10회째를 맞아 청년축제가 탄생하게 된 취지를 되살려 청년주간

행사와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를 함께 개최, 지역 청년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했다.

올해 청년주간 주제인 ‘청년돌파, 오늘도 레벨업’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매일 성장한다는 의미로, 광주청년들의 새로운 길을 청년주간에서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담았다.

‘2024 광주청년주간’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희망·격려·도전·실행력·용기 등을 주제로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서경덕 교수의 ‘청년 레벨업 토크쇼’ △광주 청년들의 현생과 갯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년, 꿈꾸는 갯생토크’ △대학 교류 경연 프로그램으로 ‘대학 댄스동

아리 교류전’, ‘청년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이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린 만큼 큰 무대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기간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이해 향상을 위한 체험 부스인 ‘청년돌파 직업 찾기’와 ‘나의 캐릭터 레벨업’, 광주시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청년정책 아지트’, 지역 청년창업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 아이템 상점 및 친환경 가치소비 마켓’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광주, 세계를 품다’를 구호로, 광주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등이 어

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명랑운동회와 OX퀴즈쇼를 통해 120여명의 국내외 대학생들이 친목을 다지는 ‘대한외국인 국제교류전’ △케이팝(K-POP) 공유카페와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총장로 골목여행’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춤, 노래 등의 경연을 펼칠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등이 펼쳐진다.

광주유학박람회도 열린다. 박람회에는 지역 6개 대학(광주대·남부대·서영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에서 유학 중인 18개국 22명으로 구성된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광주, 세계를 품다’를 구호로, 광주청년과 외국인 유학생 등이 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이 유학 정보를 제공한다. 또 맞춤형 상담(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어 캘리그래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24 광주청년주간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상세 프로그램은 광주청년주간 누리집(gjyouthfest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광주청년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각국의 유학생과 함께 교류하며 세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역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행사에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 개최

비전 공유·지방간 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가 27일까지 4일간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우호지역 지방정부와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주요 우호지역에서 40여 명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참석해 전남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역점 시책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전남도, 일본 사가현, 중국 쓰촨성의 지방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발표해 아시아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및 산업 체험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남의 발전된 모습과 매력도 소개한다. 남도음식문화체험,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 순천만국가정원 방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산업시찰 등을 통해 전남의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류회의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아시아 우호지역과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 속에서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직원들이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역발전 및 행정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1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과 에너지밸리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295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토지 분할 측량과 경계 측량 등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적기준점은 크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나뉘며 도로와 하천 등에 설치된 측량 기준이 되는 표지

들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152점, 남구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101점,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42점 등 총 295점의 지적도근점이다. 산 정상 등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돼 있지 않다. 조사는 지적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점 데이터의 신속한 위치를 파악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정리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 기여 우수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전남도가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산·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소통하며 지난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

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시동’

안정적 주거환경·생활환경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 추진

전남도가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담았다.

5대 분야 주요 과제로는 1인 가구 지원 체계 마련 및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체계 구축과 정책 홍보 강화 등이 있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

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법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 의무화로 지역 치안서비스도 강화한다.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다양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

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일반가구(79만 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28일 민·관 드론운용단 경진대회 개최

광주시는 오는 28일 북구 드론공원 일대에서 재난상황 드론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 드론운용단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광주지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드론을 활용해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발족된 ‘민·관 드론운용단’은 민·관·군·경 통합드론 운영시스템을 통해 재해·재난·긴급상황 때 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실시간으로 광주시 종합상황실에 영상을 전송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 드론운용단은 을지, 충무, 생화학

테러훈련 등 각종 훈련을 비롯해 점검이 어려운 급경사지 교량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5개팀이 재난현장에서 실증자를 수색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또 글로벌 협력을 위해 전남대 글로벌 캠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드론원격조종, 드론통합차량 등의 체험활동도 실시한다.

노병하 기자